

연천·철원 수해현장을 가다

잡풀만 큼 시름도 '무서'

약초피해 지원없이 복구임두 못내고 앞만 캄캄



◇발상계 타버린 연천군밭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 연천군민



◇집중호우때 떠내려온 나뭇가지며 흙더미들이 다시 근근히 걸려있다.

오르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농촌의 일손은 한창 바빠질 때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엄청난 수해를 일으킨 후 두달이 지나도록 복구할 일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강원·경기 북부 일원의 생약재배 농민들은 돌아올 겨울이 더욱 출기만 하다. 수해가 특히 심했던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지역을 다녀왔다.
(편집자주)

경기도 연천군 백하면 전동리. 부서진 다리난간이며 전봇대 폭대기에 낀 집채우며 떠나려왔을 법한 나뭇가지며 폐비닐 흙더미 잔해들이 곳곳에 매달려 있는 을씨년스런 가을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수해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농경지는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채 토사를 잔뜩 뒤집어 쓴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수확할 준비가 되어있는 수재민들의 진양시들이 넘실거리듯 보였다.
황기를 심었을지언정 2

만평 되는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황기뿌리는 다 쓰어 없었고 이것을 원대로 복구하려면 트랙터 비용만도 1천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정부 부서는 복구지원 하나 받을 생각이 없으니 앞이 캄캄하긴 합니다.」
다「거기다 연밭까지 상환해야 할 농자금을 채울 생각하면 더욱 한숨만 나온다며 김씨는 눈시를 을 보였다.

백하면 백령리 읍면 수씨(56)도 요즘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수확할 준비에 새벽부터 일어나가 농일을 해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낼 시기이지만 지금은 밭구석에 있는 약초의 생육상태에

「토사에 묻힌 비닐도 꺼내고 4만여평 황기밭을 다시 살리려면 복구비용만도 최소한 1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무슨 수로 복구를 해야 할지 아득한 심정이 다.」 수해가 난 뒤로는 「이 근처에 온갖 조차 싹나는 잡풀이 한뼘도 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며 김씨는

물인부 배추대와 대만 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복구를 끝내고 실제 부 배추를 파종한 후라야 1ha당 92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62만원 정도가 고작 실제 복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천군장관실의 박정현씨(50)도 토사에 묻힌 황기밭을 갈아엎고 부배추라도 대파해 보려 했지만 복구비도 만만치 않으니와 폭락할대로 폭락한 부 배추값을 생각하면 그럴 엄두도 나지 않는다.
실제로 3천평 황기밭을 2백만원을 들여 복구하고 부 배추를 심은 김정현씨(42)는 생약비리가 고사하고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 만큼 낮은 가격에 팔다가 전경영(40)도

회 인욱씨(40) 생약협 연천군 공판장(장)은 올해로 연 2년째 일어난 수해피해로 하루 아침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김인욱씨(40) 생약협 연천군 공판장

「전부 복구되고 고작 60만원만 받고 2백만 원 들여 복구한 결과와 생산하는 고사하고 무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될 지경이니까 한숨이 다.」 부 배추 대파대만도 지원받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약초재배 농가는 결국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실제 복구비에 비해 몇 배 못미치는 지원금도 조차도 받을 수 없는 농가가 허다하다. 산비탈을 개간해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33)는 수해에 황기를 잃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정부 부서는 복구비도 복구비로 10원 하나 받을 수 없는 형편. 수노작을 하던 농민은 몇몇 정부 부처와 조차배를 시작할 수(수씨) 60도 받을 수 없게 되어가다. 김지복상(62)도

「1천만원 용자에 1천여만원 자부담 총 2천여만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시작한 약초 농사인데 어디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받을지 의문이고 위상으로 가져온 종자값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다「거기 토는 것이다.」
철원군 지포리 박정현씨(52)는 생약재배가 수입개방의 빛이 밝아 소독 작부이로 전전되고 있는 풀본인 만큼 인산 농사와 같이 약초재배의 경우라도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복구금이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
<편집자주>

「토사에 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황기밭에서 운명수씨」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토사에 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황기밭에서 운명수씨



인터뷰
김인욱(40) 연천군 공판장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

「수해로 인해 밭에는 이제 가슴까지 차오른 잡풀만 무성하다. 그루성한 잡풀만큼 황기를 재배한 김인욱씨(40)의 심사도 그렇게 복잡해 보인다.」